

## II. 産業 診斷

## I. 主要 産業 動向

## ■ 동향

- 7월중 주요 산업의 활동은 기아의 부도유예조치 등 돌발 요인으로 침체속에서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띠었음
-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에서 내수는 일부 특판 조치로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대체로 위축됨
- 수출은 전월과 비슷한 실적을 보였지만, 일부(석유화학) 업종에서는 크게 부진

## ■ 전망

- 8월중 내수는 계절 요인까지 가세하여 전반적으로 부진할 전망이다
- 석유화학과 조선 부문에서 다소 수출 회복 조짐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나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 산업별 동향

## (1) 석유화학

## ○ 동향

- 7월중 석유화학 제품의 생산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계절적인 비수기로 인해 내수와 수출이 크게 부진해졌음

## ○ 전망

- 8월도 계절적인 비수기로서 내수와 수출은 부진 양상을 보일 것임. 그러나 수출은 월말에 접어들면서 본격 수요기를 앞둔 중국의 가수요가 발생하여 다소 회복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

## (2) 철강

## ○ 동향

- 6월중 조강류 내수는 수요 업체 부도 및 계절적 요인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판재류는 수요 산업의 부진으로 내수 정체가 지속되고 있으나 수출은 해외 철강 경기의 호조로 증가세를 유지함
- 7월도 조강류 판매는 장마 등의 영향으로 평월 대비 10% 이상 감소세를 보였고 판재류도 기아 사태 여파로 내수 정체와 수출 증가 현상이 지속됨

## ○ 전망

- 8월에 철강의 전반적인 판매 감소가 예상되며, 수출은 동남아 시장 수요 확대에 증가세를 유지할 것임

## (3) 반도체

## ○ 동향

- 미국, 대만의 16M DRAM 생산 증대로 인해 한·일 업체간 감소 효과가 상쇄되고 있어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출도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증가하였으나 아직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지 못함

## ○ 전망

- 8월에도 미국측이 생산 공세가 이어져 주력 제품인 16M DRAM의 가격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임

## (4) 자동차

## ○ 동향

- 7월중 자동차 내수는 특별 할인 판매와 업체들의 새로운 할부 판매 도입 등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수출도 증가 추세를 지속했음

## ○ 전망

- 8월중 자동차 내수는 국내 경제의 불안정에 따른 수요 회복 미진으로 전월에 비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수출도 기아 사태에 따른 수출 여력 감소로 전월에 비해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 (5) 조선

## ○ 동향

- 7월중 수주는 탱커 및 벌크 캐리어(BC)의 발주 물량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552.0%나 대폭 증가했고, 생산은 생산 설비의 본격 가동으로 증가세로 반전

## ○ 전망

- 8월중 수주는 증가율이 7월보다는 감소하겠지만 증가세가 여전히 지속될 전망이다. 생산도 선박 납기 물량 및 설비 가동을 증가로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 (6) 국내 건설

## ○ 동향

- 7월중 건설 수주는 주택 분양 증가, 가덕도 등 대형 민자 유치 사업의 발주 증가로 인해 8조 9,000억 원 정도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64.8%가 증가함

## ○ 전망

- 8월중에는 공공 부문 부진과 함께 민간 건축 부문 수주가 계절적 요인으로 낮아 전체 수주는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 (1) 석유화학

생산 능력이  
증가된 가운데  
계절적 비수기  
로 내수와 수  
출이 크게 부  
진

## ■ 동향

- 7월 중 생산은 설비 개보수의 완료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내수와 수출은 계절적 비수기로 부진하였음
  - 생산은 정기 설비 개보수 작업의 완료와 합성수지(PE, PP)를 중심으로 한 설비 신·증설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44.0% 증가된 6월에 이어 크게 증가되었음
  - 반면 국내 판매는 계절적인 비수기인데다가 수요 업체들이 대기업들의 부도 여파로 재고 축소 및 신규 구매 억제에 노력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21.0% 증가된 6월과는 달리 크게 부진한 양상을 보였음
  - 6월중 전년 동기 대비 21.3%나 증가되었던 수출도 대중국 수출이 계절적 비수기로 급감함으로써 부진한 양상을 보였음. 다만, 미셀사 폭발 사고, 대만 ABS 저장 탱크 화재, 중국 동광화학공장 화재 등에 따른 반사 이익과 내수 부진에 따른 업체들의 수출 강화 등으로 수출 급감 현상은 없었음

## ■ 8월 전망

내수와 수출이  
계절적 비수기  
로 부진하겠으  
나 수출은 가  
수요로 점차  
회복될 전망

- 8월에도 내수와 수출이 계절적 비수기로 부진하겠지만, 수출은 본격적인 수요기에 앞선 가수요로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 8월중 생산은 수익성 확보를 위한 업체들의 감산 노력으로 신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판매는 국내 경기의 회복이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계절적 비수기와 수요 업체들의 재고 물량 축소 노력이 이어지면서 부진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수출도 계절적인 비수기와 동남아 국가들의 공급 능력 증대에 따른 영향으로 부진 양상이 이어질 것임. 다만 월말에 접어들면 재고 물량을 거의 소진한 중국이 본격 수요기를 앞두고 수입 수요를 확대하면서 수출이 점차

증대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1997년 6월 석유화학 산업 동향>

(단위 : 천톤)

	6월		1~6월 누계	
		증가율		증가율
생 산	953	44.0%	5,686	17.7%
출 하	970	21.4%	5,649	18.1%
수 출	347	21.3%	2,025	24.1%
국내 판매	623	21.0%	3,624	15.1%

자료: 석유화학공업협회

주: 3대 유도품 기준,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박 송 동)

(2) 철강

■ 동향

철강 내수는 계절적 요인과 경기 부진 등으로 정체 지속, 수출은 수출 여력 확대외 해외 경기 호조로 증가세 유지

- 6월중 조강류는 건설업체 부도와 계절적 영향 등으로 판매 감소함. 판매류는 수요 산업 부진으로 내수가 정체되고 있으나 수출은 호조
  - 철근의 6월 판매량이 전월비 3.7% 감소하고 재고는 27만 톤으로 증가. 형강 판매는 계절적 영향과 부도 등의 요인으로 전월보다 감소하였으나 상반기 누계로는 전년비 30.5% 증가. 수입 감소와 철구조용 수요 증가에 기인
  - 열연강판은 6월 판매는 전월보다 크게 감소했으나 상반기 전체로는 530만 7천 톤으로 5.9% 증가. 그러나 생산 부족과 수입가 상승 등으로 공급 부족 지속됨. 후판은 수출 물량 확대와 수입 감소로 구독난이 가중됨. 냉연강판 내수는 6월까지 179만9천 톤으로 1.0%의 보합세, 수출은 23.6%로 호조세 지속
- 7월중 조강류 내수는 경기 부진과 장마로 6월에 이어 감소세를 보이고 H형강과 판매류 등의 수출은 증가세 유지

- 조강류는 수요업체 부도와 계절적 비수기를 맞아 수요 감소세 지속. 철근의 경우 관수 물량 감소가 가중되어 재고가 34만톤으로 증가. 형강은 기초 토목 공사용 수요는 크게 감소한 반면 철구조용 수요는 유지
- 열연강판은 관세 인하와 내수가 상승으로 수입 물량이 늘어나고, 후판은 조선 등 수요업체 재고가 바닥을 보이고 주요 수입원인 일본도 수요 호조를 보여 수입이 원활치 못해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 냉연제품은 수출 지속과 함께 자동차의 재고 누적과 기아 사태 여파로 공급 과잉의 우려가 있음

■ 8월 전망

조강류를 중심으로 내수 감소세가 지속되고 채산성이 높은 해외 시장으로의 수출 증가는 지속

- 8월 철강재 내수 판매는 대체로 감소할 것이나, 수출은 업계의 수출 확대와 해외 시장 호조로 증가세 유지
  - 철근 판매 침체는 8월에도 계속되나 업체들의 감산 및 보수로 재고는 정체될 것이고, 형강의 판매 저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 열연강판은 한보의 생산 안정과 광양 미니밀 정상화로 수급이 다소 안정을 찾고, 후판은 LNG선 건조와 신공항 공사 등 대형 사업의 개시로 공급 부족 가중될 것임. 냉연제품은 엔화 강세, 동남아 물량 확대로 수출 증가세 지속

<1997년 6월 철강산업 동향>

(단위: 1,000 톤, %)

		97.6월	증감률(전월비)	97.1~6월	증감률(전년비)
H형강	판매	212	-7.4	1,262	30.5
	철근	908	-3.7	5,685	15.4
열연강판	내수	560	-15.8	4,005	4.8
	수출	221	-3.9	1,302	9.5
냉연강판	내수	286	-11.3	1,799	1.0
	수출	204	-2.5	1,230	23.6

자료: 「한국철강신문」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박 병 칠)

## (3)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에 비해 증가했으나 올해 6월에 비해 감소함

미국과 대만의 16M DRAM 공급 확대로 가격 하락 지속

8월에는 상대적 약세가 전망됨

## ■ 동향

- 7월중 반도체 수출은 14.9억 달러로서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36.6% 증가하였음
  - 그러나 7월에 들어서도 주력제품인 16M DRAM의 가격이 하락세를 보여 올해 6월에 비해 수출액은 감소했음
  - 16M DRAM에 대한 수요가 작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인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수출액은 감소함
  - 반면 수입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6월과 7월 각각 29.0%, 10.7%의 증가율을 보임

- 수요 부진에 따른 공급 불균형으로 인해 DRAM 가격 하락 지속
  - 반도체의 최대 수요처인 PC시장이 여름철 비수기여서 수요가 부진함
  - 반면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와 대만 업체의 공급 확대로 인해 주력 제품인 16M DRAM의 가격은 계속 하락함
  - 현물시장의 가격 추이를 보면 7월초의 7달러에서 하락하기 시작해 8월 들어서는 동남아 현물시장에서는 6달러선에서 거래되기도 함

## ■ 8월 전망

- 8월에도 반도체 수출은 상대적인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마이크론테크놀로지사가 16M DRAM의 생산 확대를 계획하고 있어 가격 측면에서 약세가 지속될 것임
  - 이러한 미국측의 전략은 한·일 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감산 정책의 효과를 상쇄시키고 있음
  - PC업체로부터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9월이 되면 약간의 회복이 기대됨

<1997년 6월 반도체 산업 동향>

	6월		1~6월 누계	
		증가율		증가율
수출 (억 달러)	16.2	26.9	81.2	21.2
수입 (억 달러)	10.9	29.0	61.7	24.8
생산 (억 원)	9,791.8	8.8	51,593.7	-13.3
내수 (억 원)	318.9	-25.3	2,137.4	-36.1

자료: 수출, 수입은 통상산업부, 생산 및 내수는 통계청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신 광 철)

(4) 자동차

■ 동향

7월 국내 자동차 내수가 특별 할인 판매 등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

- 7월중 국내 자동차 내수는 29.9%에 달하는 특별 할인 판매 등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수출도 증가세를 지속했음
  - 생산은 경기 부진에 따른 조업 조절 및 휴가로 공장 가동 일수가 줄어들어 전년 동월에 비해 7.6%가 감소하였음
  - 내수는 29.9%의 특별 할인 판매 기간 3일 동안 47,766 대를 판매하였고, 중고차값 보상 판매 등 새로운 할부 제도 도입 등으로 7월중 내수는 21.0%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 수출은 업체들의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출 전략으로 전월에 이어 43.0%의 높은 증가율을 지속하였음
  - 수입차 판매는 판매 업체들의 가격 인하 등 적극적인 마케팅에도 불구하고 39.5%가 감소한 679 대를 기록했음

■ 8월 전망

내수 및 수출은 국내 경제의 불안정, 수출 여력 감소 등으로 전월에 비해 부진할 전망

- 8월중 자동차 내수 및 수출은 전월에 비해 부진할 전망이다
  - 생산은 전월의 내수 확대에 따른 재고 감소, 수출 증가세 지속 등으로 전년 동월 수준인 22만 대 정도로 예상됨
  - 내수는 국내 경제의 불안 지속과 이에 따른 수요 미흡으로 전월보다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 금융권의 기아그룹의 수출환어음(DA) 및 수출 LC 매입 거부 등으로 8월중 자동차 수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수입차 내수 판매는 수입 업체들의 가격 인하 등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진으로 감소 추세를 지속할 전망임

<1997년 7월 자동차 산업 동향>

(단위 : 대)

	7월		1~7월 누계	
		증가율		증가율
생 산	212,347	7.6	1,632,874	2.0
내 수	161,694	21.0	886,577	-6.8
수 출	104,734	43.0	743,342	15.2
수입차 판매	679	39.5	5,387	11.4

자료: 6월까지의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자동차 통계 월보」 각호, 7월은 잠정치임.

주: 수출에서 KD는 제외,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운 창 호)

(5) 조선

■ 동향

탱커의 발주 물량 증가로 수주 증가세 지속, 생산도 증가세로 반전

- 7월중 수주도 높은 증가세 유지, 생산도 증가세로 반전
  - 7월의 신조선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552.0% 증가한 123.6만 GT임
    - 선가를 바닥으로 인식하고, 또 향후 유류 시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선주들이 탱커를 조기 발주하고 있기 때문임
    - 현재 우리나라는 99년도 이내에 선박을 인도할 수 있는 반면, 일본은 그 여력이 부족한데도 기인함
    - 또 1996년 7월의 수주 물량이 월별로 최저치였음
  -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4.3% 증가한 54.5만 GT로 나타남
    - 지난해 완공된 생산 설비의 본격 가동으로 건조 물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 올해 7월까지 수주는 증가세 지속, 생산은 감소세
  - 신조선 수주는 전년 동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함
  - VLCC의 경우를 보더라도 96년도 전체 발주 물량보다 6척이 많은 24척이 상반기에 발주되었기 때문임
  - 그러나 생산은 여전히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8월 전망

수주는 증가세 지속, 생산 설비의 본격 가동으로 생산도 증가세 지속 전망

- 8월에도 수주와 생산은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 수주 증가율에서는 낮아지지만 물량면에서는 여전히 작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 지난 7월 31일에 국내 해운사들에 낙찰된 LNG선 7척이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생산 설비의 본격 가동과 선박 납기 물량의 증가로 생산은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
  - 생산 증가로 수출도 증가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됨

<1997년 7월 조선 산업 동향>

		7월		1~7월 누계	
			증가율		증가율
수주	만 GT	123.6	552.0	651.2	206.4
생산	만 GT	54.5	14.3	378.7	-13.3

자료: 조선공업협회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정 회 식)

(6) 국내 건설

■ 동향

7월은 가덕도 등 대형 민자 유치 사업 발주로 큰폭 증가

- 7월중 건설 수주는 주택 분양 증가, 민자유치 사업 발주 증가로 8조 9,000억 원 정도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64.8%가 증가함
  - 공공 부문은 경기 침체에 따른 상반기의 조기 발주에 따른 발주 물량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한

3조 원에 그침

- 민간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110% 증가한 5조 9,000억 원에 달함
  - 수도권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활기, 지방 분양가 자율화로 주택 공급이 증가했음
  - 특히 가덕도 신항,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ASEM) 관련 공사 등 대형 민자사업 발주로 수주 증가폭 확대

■ 8월 전망

8월은 계절적 요인에 의한 민간 건축 축소로 부진

- 8월중 건설 수주는 공공 물량 축소와 계절적인 요인에 의한 민간 건축의 축소로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
  - 공공 부문은 건축에서 학교 시설, 공용 시설 등의 발주, 토목은 지방 쓰레기 소각장 발주가 예상되나 대형 공사 발주가 상반기 중에 끝나 전년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임
  - 민간 부문은 토목에서 경기 회복에 따른 설비 투자 증대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건축 부문이 계절적인 요인으로 약간 감소할 것으로 보여 전체적으로는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

<1997년 7월 국내 건설 수주 동향>

(단위: 조 원)

수주	7월		1~7월 누계	
		증가율		증가율
합계	8.9	64.8	48.16	35.7
공공	3.0	16.7	19	30.9
민간	5.9	110	29.18	39

주: 7월은 대한건설협회 추정치,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김 선 덕)